

저작권 태풍에 갈곳없는 온실 속 책들

7월 개정저작권법 발효 앞두고 파장 커... 출판사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

지난 95년 11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서서히 출판계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소급보호조항 최초 해당 시점인 1996년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실질적인 저작권 파장이 출판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출판사들이 이처럼 고민에 빠지게 된 원인은 개정저작권법에 신설된 부칙 4조에 명기된 소급보호 경과조치 때문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WTO체제하의 트립스협정이 국내에서 발효된 것이 95년 1월 1일부터이므로 95년 1월 1일을 기투자분의 기준시기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원작자의 리프린트물(단순복제물)의 경우 9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것은 96년 12월 31일까지, 번역 각색 영화화 등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은 99년 12월 31일까지 허락이나 보상없이 배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9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하거나 작성된 것은 리프린트물이든 2차적 저작물이든 상관없이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부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유력 출판사들 민감한 반응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이 시기에 해당되는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실감나게 다가오는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의 여파는 출판사는 물론 독자들을 포함한 출판계 전체와 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에 가장 민

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출판사들은 그동안 외국 최신 이론이나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근작 문예물들을 국내에 소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른바 유력 양서 출판사들이다. 이 출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지명도 있는 외국 저자의 저작물을 다수 출간해왔고, 상당수의 독자 역시 이들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된 책들을 통해 해당 저자의 이론과 작품을 접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들이 본격적인 저작권 태풍에 방치되는 2000년 1월 1일 이후가 가장 큰 문제지만, 소급보호 경과조치에 의한 기투자분 결정의 기준 시점인 95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오는 7월 1일부터 문제가 된다. 출간은 물론 재판, 유통, 판매 등 모든 출판행위가 금지되는 것. 이에 따라 각 출판사는 기민하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음사는 올해 출간한 질 들뢰즈의 《감각의 논리》와 자크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민음사측은 우선 최대한 저작권자와의 정식 계약을 추진하고 그것이 불발로 끝나면 해당시점에 모두 절판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감각의 논리》는 현재 원저자와 계약을 추진중에 있지만 《그라마톨로지》는 이미 국내 타 출판사가 자크 데리다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간 5개월만에 절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음사의 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불



7월1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를 앞두고 출판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강연회 모습.

과 4년 남짓 남은 오는 2000년부터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계약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데아 총서〉처럼 시리즈 형태로 나온 책들 중 상당수를 절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길사의 경우 《중국의 역사》(진순신 지음)가 이 시점에 해당되어 저작권 계약체결을 진행중이다. 윤양미 편집차장은 “95년 1월 1일 이후에 출간된 책들이 다수 있지만 대부분 번역은 그 이전에 완성된 것들이어서 올 7월1일 시점에 걸리는 책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는 기투자분 결정의 요건을 ‘출간’이 아닌 ‘작성’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인문과학 이론서를 다수 출간하고 있는

문예출판사 역시 올 7월1일에 문제되는 저작물은 《계몽의 변증법》(호르크 하이머, 아도르노 지음)정도이다. 박정하 편집장은 “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내 실정에 걸맞는 대안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존 파울스의 《마구스》와 최근에 출간된 〈신화상징총서〉 2권이 이 시점에 해당하는 문헌동네 역시 “절판같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 작가들의 책을 다수 출간하고 있는 문학사상도 “대부분 번역은 95년 이전에 진행된 것들이기 때문에 올 7월부터 문제가 되는 책은 별로 없으며, 문제가 되는 책들은 계속 계약을 추진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절판조치는 취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치와 사실

길병희 지음 / 248면 / 7,500원 / 철학박사학위논문 8

서구의 분석 윤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토대인 가치와 사실의 이분법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인간 의식의 지향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20세기에 제기된 영미 윤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헤겔의 神 개념

박영지 지음 / 200면 / 6,000원 / 철학박사학위논문 9

헤겔이 어떻게 종교 문제, 신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변증법을 체계화하게 되었으며, 완성된 그의 변증법적 신관(神觀)은 어떠한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현대의 신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헤겔의 독특한 神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철학, 그 문제와 이론들(수정판)

K. 아두키에비츠 지음 / 송병욱 옮김 / 208면 / 6,500원

러셀의 《철학의 문제들》에 비길 만큼 이미 그 명성이 알려진 책으로, 주로 철학의 근본 문제들, 예를 들면 진리와 인식의 근거와 한계, 결정론과 비결정론, 종교적인 문제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매우 명료하게 다루고 있다.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

J. 헤센 지음 / 허재운 옮김 / 512면 / 20,000원 / 양장

종교 철학 분야의 고전으로서 종교 철학의 주요 문제들을 영미 철학의 분석적·자연주의적·실용주의적 입장이 아닌 유럽 철학의 정통적 입장 즉 현상학적 입장과 가치 철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95년 1월1일 이후 제작, 작성된 저작물은 오는 7월부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출판 배포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출판물을 가진 출판사들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저작물의 계약을 새로 추진하려 해도 이미 국내 타 출판사가 계약을 체결한 후라 어쩔 수 없이 절판해야 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세계의 명작 시리즈물을 발간하고 있는 대부분의 출판사가 "99년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 가서 알맞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출판사들이 절박한 조치보다는 융통성있는 내부방침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개정 저작권법의 유권해석상 국내 출판계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환기창'이 있기 때문. 우선 '출간'이 아닌 '작성'이기 때문에 95년 1월1일 이전에 번역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된다. 바로 이 점을 활용해 새로운 책을 내는 출판사도 있다. 자사에서 예전에 출간했던 책들을 다시 페이지 퍼백의 형태로 출간하고 있는 고려원이 대표적인 경우. 판형과 표지만 교체했을 뿐

'재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자체가 국내법 우선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재판도 국내에서 치러지고 판결 이후의 처리도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점도 출판사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출판사들 사전조율 필요해

또한 분쟁 발생의 원인이 원저작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직접고소'에 의해서만 성립된다는 점도 출판인들을 다소 안심시키고 있는 분위기. 그러나 원저작자가 출판의 사실을 알고도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작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국내 출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계약을 체결한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작권 분쟁은 원저작자와 출판사의 문제가 아닌 국내 출판사끼리의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최근 부르디외, 데리다, 크리스테바 등 외국의 지명도 있는 저자들의 거의 모든 작품과 계약을 체결하고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동문선의 신성대 사장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복출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국출판이 합리적인 질서를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언급하면서 "올 7월 1일 이후 자사와 계약되어 있는 출판물을 다른 출판사에서 법에 의하지 않고 출판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출판사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물론 합리적인 저작권 개념이 자리를 잡아야 하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강대국의 입장에서 체결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국내 출판사끼리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부 출판인들은 "저작권법의 대의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외국의 경우 먼저 출판한 출판사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관례가 있고, 기존의 출판사들이 국내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데 기여한 부분도 참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힘들게 번역한 번역본을 폐기하고 다시 번역을 해야 하

는 현상은 너무 소모적"이라는 독자들의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출판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다. 저작권 강화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복출판' 등 국내 출판계가 안고 있는 전근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대다수 출판인들과 독자들이 국내 출판사끼리 사전조율 등을 거쳐 이러한 전황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 허연 기자

알림

《출판저널》 기자를 뽑습니다.

《출판저널》에서 함께 일할 편집부 기자를 뽑습니다. 책과 출판에 애정을 가진 분으로서 《출판저널》 기사를 기획, 취재, 청탁하는 일에 재능과 의욕을 가진 분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 ▲자 격 : 1966년 이후 출생자로서 출판·잡지 경력 2년 이상인 자
- ▲마 감 : 3월 30일(토요일)까지(우편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기명기사가 있을 경우 복사본
-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내 출판저널 편집인 앞
우편번호 110-190
전화번호 732-1431~3

아내의 한국인

아내의 한국인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툭툭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언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벌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솔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녀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포섭합니다.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 / 정가 : 6,000원